

광주 전통시장·전남 소상공인 경기전망 '암울'

6월 전망지수 3.1P·8.7P 하락

전국 최하위·하위권 기록

오랜 불황에 소비심리 위축 요인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이달 경기전망이 전년에 비해 급감하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이 크게 하락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광주시 전통시장 전망 BSI는 전월(54.1)보다 3.1p 감소한 51.0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보다 12.3p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SI는 주요 업종들의 경기동향과 전망,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활용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실적 호전', 미만이면 '악화'를 나타낸다.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평균 BSI 6월 전망치는 63.0였는데, 광주 전통시장은 평균보다 12p 낮고, 부산(63.0), 인천(60.0), 대전(61.0) 등 타 광역시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았다.

전남지역은 소상공인 BSI 전망치가 한 달 세 개 하락하면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의 6월 소상공인 BSI 전망치는 64.0으로 전월(72.7)보다 8.7p 하락했고, 전년 동기

(77.7)에 견줘서는 13.7p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전북(60.7), 경남(61.8), 충남(63.8), 부산(63.8)에 이어 하위 '5개 시·도'에 포함됐다.

이처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향후 지역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각각 42.9%, 45.3%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전망 경기 악화의 주된 사유로 꼽았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은 '날씨-계절성 요인'(16.3%), '비수기 영향'(9.6%)을, 전통시장에서도 '날씨-계절성 요인'(16.0%)과 '유동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 요인'(12.0%)을 전망 경기 악화 사유로 들었다.

소상공인 전망 BSI를 부문별로 보면 판매실적(-4.8p), 자금사정(-2.8p), 비용상황(-3.9p), 구매고객수(-5.6p) 등 모든 부문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전통시장 업종별 전망 BSI는 가정용품(10.6p), 수산물(3.2p)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그 외 모든 업종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이 10.1p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농산물(-9.7p), 의류·신발(-8.0p), 가공식품(-6.1p)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1300곳, 소상공인 업장 2400곳의 총 3700곳의 표본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후원금

전남개발공사와 활성화 업무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일 전남개발공사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국제자동차경주장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전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 체육시설로, 한 해 평균 10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기준의 안전시설이 확보돼야 받을 수 있는 레이스 트랙 최고등급인 '그레이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다.

또 F1블록과 상설블록, 오프로드, 카트경기장 외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야구장, 오토캠핑

장 등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테마파크로써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여가 문화 공간이자 다양한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광주은행과 힘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국내 모터스포츠 및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자동차경주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민의 공공체육 시설로서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 행으로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주택건설협회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 지원

광주·전남지회 18가구 이달 마무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는 '호국보훈의달'(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낡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무료로 개·보수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329가구의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아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거주하는 상이군경 최모(82)씨 등 18가구에 대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주택업체 16곳이 지난달부터 공사를 시작

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도회는 수혜대상자의 희망사항을 기반으로 출입문, 방, 부엌, 마루,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 창호공사, 지붕개량공사, 외부도색, 보일러교체, 도배, 장판 등을 범위내에서 공사하게 된다.

올해 참여 업체는 고운주택㈜과 중흥건설㈜, 라온주택㈜, ㈜유미개발 등 16곳이다.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주택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상승, 금융권 리스크등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협회의 사회공헌사업에 변함없이 동참해 준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호남 첫 '리틀 아카이브' 오픈

베게커버·차렵이불 등 할인 판매

광주신세계는 키즈 리빙 편집숍 '리틀 아카이브'를 호남지역 최초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리틀 아카이브는 '낮잠 이불'로 유명한 '타이니 코스모스'와 '크레드 양팡' 등으로 대표되는 편집숍으로, 지난 1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리틀 아카이브 매장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수도권에서 주로 운영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각종 이불과 베게커버 등 생활용품과 유아용품 면 액자 인형 등도 판매한다.

리틀 아카이브는 광주신세계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베게커버와 차렵이불 등 준비된 특가상품들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보타 면리플 베게커버', '면리플워싱 차렵이불', '치치 롤링 블랭킷', '프랭키 양모워싱 패드' 등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오는 15일까지 리틀 아카이브 매장에서 볼품 구매 시 에코백·우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100개사 밀착 지원

정부, 디렉터 매칭 컨설팅 제공

정부가 성장 역량이 높고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디렉터' 매칭을 통한 밀착관리를 추진한다.

스케일업 과정마다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릴레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밀착관리 대상이 되는 100개 기업은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산업 진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릴레이 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한 기술 기반 자본 공급도 확대하고,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는 우대 조건 자금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 투자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망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도 개편한다.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도 지원한다.

예비·초기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기업당 최대 보증 한도도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및 해외 판로 지원을 위한 대책들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수 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기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확대 및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2.52(+46.00)
↑ 코스닥	844.72(+4.74)
↓ 금리(국고채 3년)	3.434(-0.018)
↓ 환율(USD)	1376.10(-8.40)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